"종단과 불교미래 책임질 주인공"

직할교구, 기본교육기관 학인 25명에 100만원씩 장학금 지급

조계종 직할교구가 올해 처음으로 승가인재 양성을 위해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직할교구는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직할교구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25명의 스님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2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직할교구 장학금 지원 사업은 교구 소속 스님들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승가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 앞서 직할교구는 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에 재학 중인 직할교구 학인 스님들을 대상으로 사전 공고를 통해 모집한 결과 43명이 신청했으며, 이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학계획 및 졸업 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5명을 최종 선정했다.

지난 18일 제1회 직할교구 장학금을 받은 25명의 학인 스님들이 총무원장 자승스님, 조계사 도선사 등 직할교구 주지 스님들과 기념촬영을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종단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수행정진했으면 한다"면서 "종단에서도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수행정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또 "후원 사찰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사, 도선사, 진관사, 약사사, 수국사, 호압사 등 장학금 후원 사찰 주지 스님들도 자리를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은 "종단과 선배 스님들이 베푸는 작은 혜택이 계기가 되어 개인의 영역에서 수행으로 꽃피고, 또 사회적 영역으로도 확대돼 이웃을 어루만지는 동량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도경스님(봉녕사 승가대학 1학년)은 "장학금을 받게 될 줄 생각도 못했다"면서 "향후 불교학 분야 가운데 인도불교학을 공부해 불교 학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용주사 전 주지 정호스님 원적

효행문화 확산·본사 위상 강화 '간소한 장례' 당부 유지 받들어 동탄 용화사서 간소하게 영결식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 용화사에서 법랍 44세, 세수 72세로 원적에 든 제2교구본사 용주사 전 주지 정호스님〈사진〉의 영결식이 17일 용화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거행됐다.

정호스님의 영결식은 용주사에서 거행될 예정이었으나 간소한 장례를 당부했던 스님의 유지에 따라 용화사에서 거행됐다. 영결식에 참석한 사부대중 400여 명은 포교 활성화와 효문화 확산에 앞장섰던 정호스님의 뜻을 기리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영결식 이후 스님의 법구는 수원 연화장으로 운구해 다비식을 엄수했다. 영결식에 앞서 빈소가 마련된 용화사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김진표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스님의 뜻을 기리는 추모행렬이 줄을 이었다.

출가 이후 줄곧 선원에서 정진해 온 정호스님은 지난 2006년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에 취임했다. 이후 정호스님은 '본사의 수행가풍을 드높이자'는 점을 강조하며 용주사를 운영해 왔다. 어린이법회 개설을 시작으로 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법회 프로그램 개발, 효의 가치를 중점으로 전달하는 템플스테이, 불자들을 위한 각종 경전반 개설, 불교대학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효를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사회 효행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효행대본찰로서 용주사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앞장섰다. 인근 아파트 개발 논리에 맞서 용주사와 정조대왕의 효심이 서려 있는 융·건릉 일대를 보존하기 위해 효 문화공원으로 개발해 우리나라 효문화를 세계에 알리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호스님은 지난 1973년 인천 용화사 법보선원에서 전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5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3년 용화사 법보선원 수선안거 이래 30안거를 성만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용주사 주지를 역임했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청정승가 유지할 수 있도록 계율교육 심화돼야"

계단위 율장연구회 계율토론회 덕문스님 "기본교육 한 과목뿐… 여법한 갈마 위해 최소 5년 필요"

1981년 개설해 올해로 36주년을 맞는 조계종 단일계단의 역사와 의의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계단위원회 산하 율장연구회(회장 무관스님)는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 계단사'를 주제로 제4회 계율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계단위원장 성우스님은 "계율이 중흥될 때 비로소 불교가 발전한다"며 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무관스님도 "조계종이 한국불교에서 장자종단이라고 불리는 것은 1700년 한국불교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계법을 여실히 전승해온 때문"이라며 "오늘 토론회는 단일계단을 회고하고 율풍을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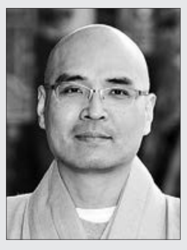
무관스님의 '불교전래와 계단'에 대한 기조발제로 시작한 토론회에서 영축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스님은 '조계종의 계단 및 율맥의 전수'를 살펴봤다. 덕문스님은 한국불교의 율맥을 대은, 금담으로 이어지는 칠불암 서상수계 계맥과 만하승림의 법원사 계맥을 대표계맥으로 제시하고, 통도사 문수계맥, 선운사 백파계맥과 기타 중국수계 계맥에 대해 정리했다.

이어 계율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여법한 갈마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하려면 최소 5년의 기간을 필요로 하나 아쉽게도 선교육 후득도 제도를 시행한 결과 율장을 공부하지 못하고 기본교육과정에서 계율교과가 한 과목 뿐"이고 "구족계산림 때 9일간의 수계산림이 계율공부의 전부인 경우가 전체 종도의 9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신뢰받는 청정한 승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율 교육이 심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봉녕사율학승가대학원 연구원 설오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율맥의 전수'에 대해 고찰했으며, 해인사율학승가대학원 율주 경성스님은 '단일계단의 설립과 의의'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밖에 토론에는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장 지형스님, 송광사율학승가대학원장 대경스님,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등이 참여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멋지게 낭만적으로 사는 법' 자현스님과 선지식 구법여행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스님〈사진〉이 불교신문과 조계사불교대학총동문회가 공동 주관하는 53선지식 구법여행의 열두 번째 초청법사로 나선다. 자현스님은 오는 28일 오후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멋지게 사는 것과 낭만적으로 늙는 법'을 주제로 법문한다.

자현스님은 동국대 철학과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불교학과와 성균관대 동양철학과에서 석사를 받았다. 또 성균관대와 고려대 등 4개의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불교계의 대표적 저술가로 꼽히는 자현스님은 현재 불교신문 논설위원, 월정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아사리, 울산 영평선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학진 등재지에 120여 편의 논문을 수록했으며, 스님이 쓴 30여 권의 책 가운데 〈불교미술사상사론〉은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사찰의 상징 세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붓다순례〉는 세종도서에 선정되기도 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은해사, JSA 법당불사 1000만원 지원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돈관스님)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군종특별교구 지원금 10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기금은 군종특별교구가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신축 법당 불사 지원에 쓰인다.

장교 양성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에 매년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군포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돈관스님〈사진〉은 이날 전달식에서 "군종교구에서 건립하는 법당 불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른 분들도 관심을 갖고 십시일반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군종특별교구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최효임 화가, 전시회 수익금 탄자니아학교 기금으로 전달

지난해 1500만원 이어 500만원

최효임〈사진〉 문인화 화가는 지난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최효임 화가가 지난 6월 개최한 문인화초대전 전시회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전시회 수익금 1500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 화가의 모친과 박인명화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 단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최효임 화가는 전달식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렵게 공부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총무원장 스님에게 직접 기금을 전달하게 돼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정성이 깃든 성금을 내줘 감사하다"며 "불자들의 성원이 이어질 때마다 큰 힘을 얻는다"고 화답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청견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다르마킹칼리지(절수행교육)
◎완벽한 :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알아차림, 감사염송법 텅빈 고요 삼매체험
◎순간 찰라 번뇌 망상, 잡생각 싹 끊는 비전
◎순간 찰라 마음이 크고 넓고 높게 큰마음 되는 비전
◎저절로 자동단전복식호흡의 비전
◎우주 태양+지구 땅의 기운 초고속 충전 비전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 초견성 비전

※상기 교육 마스터한 수행자에겐
◎스트레스와 부정적 맘으로 자율신경 무너져 심장 쿵쿵 뛰고 숨은 거칠고 공격홀몬 쏟아져 온몸 지배하는 병불행지옥 순간을 극복하는 지혜의 비전(10초~20초)
◎신명나는 인류최고의 가장 쉽고 온전한 빠른 요지부동 와선명상삼매를 체험케 함

절교육일정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 ~ 3시30분(1일 3명 예약)
(깨달은 절수행이란? 책 읽고 홈페이지 참고하고 동참 요망)
절교육대상 : 상위 1% 수험생, 고시생, 명문대생, 한의사, 연구원, 벤처 CEO, IT연구원 예술인, 특별 우선 교육
주 소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신지2리 1101-1)
문 의 :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깨달은공동체 법왕정사 한불수행문화연구소

心身醫學講座
(심신의학강좌)

대구인생학교에서는 국민의 올바른 심성개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심신의학강좌를 열고 있으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모/집/안/내
▶강좌일시 대구 매주 월요일 오후2시 ~ 4시
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2시 ~ 4시
부산 매주 목요일 오후2시 ~ 4시
▶강좌장소 대구 동대구역 – 파티마병원 중간(동양슈퍼 4층)
부산 부산역앞 – 광장호텔 뒤(돌담집식당 2층)
▶강좌교재 법화경(심성개발)
황제내경(자연의학)
도인술(건강운동, 자기치유)
▶수강회비 무료(단, 교재비 자부담)
▶문 의 053)952-8711 / 017-501-8711

킹스대학교 협력기관
大邱人生學校(대구인생학교)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86